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전하다

여의도성모안과병원, 국내 각막이식 6% 점유

국내 기증 각막
이식건수
국내 3위 기록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2024년 65건의
국내 각막이식 시행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고난도 수술로
각막이식 분야 선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이 최근 한 해 동안 총 65건의 각막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각막이식 분야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개원 3주년을 맞이한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1958년 안과 개설 이래, 1967년 국내 최초 안은행 설립과 더불어 한국의 각막이식 역사를 이끌어 온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막이식은 총 1,140건으로,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의 지난해 65건은 전체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치로써 이는 단일 의료기관으로서 매우 높은 비율이다.

특히 65건 중 국내 기증 각막이식은 25건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2023)에서 국내 기증 각막이식 건수는 총 330건으로,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의 지난해 25건은 전체의 약 8%를 차지하며 국내 3위의 기록을 달성했다. '국내 기증 각막이식'은 국내 기증자에게서 받은 각막을 사용한 수술을 말한다.

2024년은 의정사태로 인해 안구적출 과정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으나, 병원 의료진들은 참된 의술의 본질을 실천하며 직접 현장에 나섰다. 기증자의 소중한 의지를 잇기 위해 직접

안구를 적출하고, 각막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 기증 각막을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기적을 선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안과병원 안은행장 나경선 교수는 "국내 기증 각막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수입 각막을 병행하여 각막혼탁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빛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또한 국내 각막이식의 혁신을 이끄는 개척자로서 新 수술법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다. 황호식 교수 연구팀은 최근 기증자의 데세메막(Descemet membrane)을 두 개의 캐놀라를 이용해 '더블 롤' 형태로 변환하는 새로운 술기의 각막내피세포 이식술을 개발해 발표할 바 있다. 해당 신기술은 기존의 복잡한 이식 수술 과정을 단순화하고 내피세포 손상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탁월성을 가진다.

또한 앞부분증각막이식 수술 중 수술현미경을 통해 망막반사를 관찰하며 각막절개의 깊이를 판단하고, 가능한 깊이 절개해 분리하는 수술법을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각막이식

의 성공률을 높이고 주요 합병증을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된 새 치료법들은 안과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며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이 국내 각막이식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혼탁한 각막의 전층을 잘라낸 후 기증각막을 봉합하는 전통적인 전층각막이식 외에도 환자의 상황에 따른 고난도 수술을 다수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앞층판부분증각막이식(DALK) 4건, 데세메막박리내피세포이식술(DSaEK) 11건, 내피세포이식술(DMEK) 11건, 각막윤부줄기세포 이식 2건 등의 수술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력을 제공하고 있다.

안과병원장 황호식 교수는 "각막이식은 단순한 의술이 아닌 생명과 시각을 되찾아주는 숭고한 의학적 행위"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수술 기법과 헌신적인 자세로 국내 각막이식 분야를 이끌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부속 8개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등급 쾌거

대장암·위암·폐암 치료와 수혈 및 응급의료 분야 국내 최고 수준 입증

가톨릭대학교 부속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전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수혈 적정성 평가' 및 '제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 쾌거를 달성했다. 이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8개 병원 모두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자랑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인정받았다.

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만 18세 이상 원발성 암으로 수술·항암 화학요법·방사선치료를 받은 대장암, 위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수술 중심이었던 평가 범위가 치료 과정 전반으로 확대됐으며, 다학제 진료, 조기 수술 비율, 전문 인력 구성 등의 새로운 지표가 추가 도입됐다. 주요 평가 지표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암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 비율 ▲수술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수술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등 공통지표와 암종별 특이표로 이뤄졌으며, 8개 부속병원 모두가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되며 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수혈 적정성 평가는 202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 1,1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수술 전 빈혈 교정률 등으로 이뤄졌으며 8개 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안전하고 적절한 수혈 및 혈액 사용 관리를 준수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제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권고되는 18개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8개 부속병원 모두 ▲최초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로 1등급을 획득하며 항생제를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는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응급 환자에게 최선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시설, 장비, 인력 등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가톨릭대 부속병원들은 주요 평가 지표인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환자분류의 신뢰 수준 ▲전담의사·전문의·간호사 등 전담의료 인력의 적정성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시간 ▲최종 치료 제공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부 연구개발비 관리

연구행정 역량 우수 대학 입증

2024년 연구행정 전문가 경진대회

기관 부문 특별상, 개인 부문 최우수·우수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4년 연구행정 전문가 경진대회'에서 기관 부문 특별상과 개인 부문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며, 연구행정 역량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2024 연구행정 전문가 경진대회'는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며, 전국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행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대회다. 이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4년 경진대회는 136개 연구기관에서 632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예선과 본선을 거치며 연구개발비 관리 역량을 평가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선에 가장 많은 인원이 진출했으며, 기관별 평균 점수에서 고득점을 기록해 기관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성과가 빛났다. 연구관리팀 황보미 U이 최우수상을, 강윤아 사원은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산학협력단 구성원의 뛰어난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는 연구관리팀의 전문성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조석구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대학의 연구성과 못지않게 연구행정 역량도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연구지원 체계 구축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번 성과는 연구행정 역량 강화가 연구 성과 향상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혁신적인 연구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성모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S등급' 획득

전체 602개 평가기관 중 전국 5위 달성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상위 5%)'을 획득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는 전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6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운영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평가참여도, 사업참여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성,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총 47가지 영역의 점수 95점과 패널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상위환자군 비율,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가점제 5점을 합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S, A, B, C, 등급 외, 평가제외 등 6등급으로 나뉜다. 부천성모병원은 총점 96.51점으로 상위 5%인 S등급에 전국 5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성모병원은 2015년 9월 1일 35병상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성심관 전 병동 322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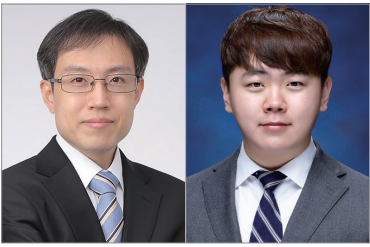


으로 오픈, 2021년 성모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로 현재 총 10개 병동 466병상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성 나노입자·자기장으로 종양 표적 약물 전달기술 개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구희범 교수팀, 동물 모델 실험에서 부작용 감소·치료 효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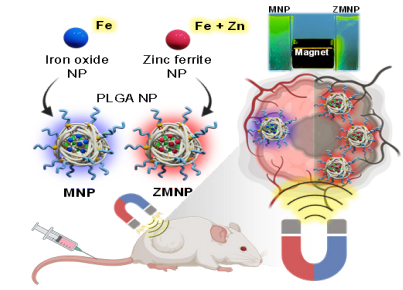
구희범 교수(왼쪽)·이동현 박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종양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교신저자, 의생명과학교실), 이동현 박사

(제1저자) 연구팀이 강한 자성을 띠는 Zinc ferrite와 항암제를 탑재한 나노입자를 개발하여 종양 표적 약물 전달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난치성 질환 치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입자는 항암제와 자기장에 감응하는 물질인 'Zinc ferrite' 나노입자를 더 큰 PLGA 나노입자 안에 동시 탑재한 형태로, 생체 주입 이후 외부 자기장을 이용하여 종양 부위에 나노입자를 표적 전달시키는 기술이다. 투여된 나노입자는 혈류를 따라 순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양 부위에 특이적으로 자기장을 가하면 강한 자성을 띠는 나노입자가 감응하여 종양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는 원리다.

Zinc ferrite 나노입자는 자성을 강화해 외부 자기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혈류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외부 자기장에 의해 특정 종양 부위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다. 나노입자가 종양 부위에 도달하면 내부의 항암제를 효율적으로 방출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동물 모델 실험에서 Zinc ferrite 나노입자는 기존 대비 종양 표적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쥐 종양 모델에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치료 효능을 높이는 결과



▲ 강한 자성을 띠는 Zinc ferrite와 항암제를 탑재한 생분해성 PLGA 나노입자를 주입한 후 외부 자기장을 가해 종양 부위에 약물을 전달할

를 보여 임상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가톨릭종양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중견연구,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13.4)의 온라인 및 지면에 게재됐다.



비후성 심근증에 'SGLT-2 억제제' 치료 가능성 제시

서울성모 정미향·대전성모 조정선 교수팀, 사망 및 입원 위험 24% 감소 확인



정미향(왼쪽)·조정선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정미향(제1저자)·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조정선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심장근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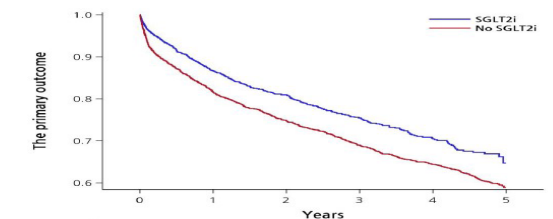
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에 혈당강하제인 SGLT-2 억제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15mm 이상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유전성 심질환 중 하나다. 환자의 약 40~60%에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고 가족 선별 검사가 중요하다.

다. 이 질환은 급성 심장사, 심실성 부정맥, 심방세동 등 부정맥이나 심부전의 위험을 높이지만 치료는 주로 베타차단제나 칼슘채널차단제와 같은 일반적인 약제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비후성 심근증에 특화된 마이오신 차단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SGLT-2 억제제는 심부전 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심부전 약화로 인한 입원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비후성 심근증에서 SGLT-2 억제제의 효과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총 8,066명의 비후성 심근증 및 당뇨병 환자 중 SGLT-2 억제제를 처방받은 2,277명과 다른 당뇨약을 처방받은 5,789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SGLT-2 억제제 사용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 SGLT-2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파란색)는 다른 당뇨약을 처방받은 환자보다 사망 및 심부전 약화로 인한 입원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및 심부전 약화로 인한 입원의 위험을 약 2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비후성 심근증에서 SGLT-2 억제제가 부정맥 및 심부전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IF=8.6) 최근호에 게재됐다.



우주 환경을 활용한 첨단 재생의료 국책사업 선정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주지현 교수팀, 조혈모세포·인공혈액 제조·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주지현 교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종양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첨단세포치료사업단장 주지현 교수(연구책임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조병식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센터 임예리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 '의료난제

극복 우주의학 혁신의료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우주에서의 생체반응 연구로 조혈모세포와 인공혈액의 대량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희귀 혈액질환 및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우주정거장과 인공위성을 활용해 인체유

래유도만능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조혈모세포 및 인공혈액을 제조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구 중력 환경에서 한계가 있었던 세포 분화 및 증식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세포 배양 공정을 최초로 도입한다. 특히 우주에서의 생체반응 연구를 통해 조혈모세포와 인공혈액의 대량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희귀 혈액질환 및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난제 극복 우주의학 혁신의료기술개발사업'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주관하고 루미르(주)와 (주)입셀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제2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2028년까지 진행되며, 총 연구비는 90억 원 규모다.

연구는 지구 중력 환경에서 조혈모세포 분화 공정을 확립한



▲ 의료난제 극복 우주의학 혁신의료기술개발사업 우주 실증 계획 모식도

뒤 미세중력 모사 환경 및 실제 우주환경에서의 실증 연구로 이어지며 이후 2027년 루미르(주)와의 협력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해 우주 바이오 캐비닛에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실질적인 임상 연구로 이어져 혈액암, 빈혈, 면역결핍증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와 연구에 헌신하는 전문가, 김정구 교수

대전성모병원 외과 김정구 교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김정구 교수는 위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 수술 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전문가이다. 일본 도쿄 국립암센터에서의 연수를 통해 선진적인 치료 방법과 연구 기술을 습득한 그는 이를 국내에 접목하며 위암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삶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김 교수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지향하며, 수술 후에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한위암학회 대전충청지부 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학회 활동과 연구 발표를 통해 위암 치료의 최신 지식을 공유하며 국내 의료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위암 치료에서의 경험과 접근법

김정구 교수는 위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수술을 꼽는다. “수술은 위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강경 및 로봇을 활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환자들의 회복 속도와 수술 결과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위 절제 범위를 줄이는 수술법을 도입해 환자의 정상적인 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며,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암 치료 과정에서 다학제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성모병원 위암 협진 팀장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다양한 전문의들이 환자 상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적의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협진의 장점은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좋은 의사는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환자 진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김 교수는 의료진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춘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협진의 강점은 환자의 치료 과정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맞추어 유연하고 신속하게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와 혁신 - 분자 유전학적 분석

김 교수는 임상 진료 외에도 연구자로서 위암의 분자 유전학적 변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는 위암 관련 돌연변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치료 반응과 예후를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위암 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일본 연수에서 얻은 경험은 김 교수의 연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유문 보존 수술법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국내에 도입하며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해 왔다. 또한, CMC 산하 8개 병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환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기관 연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 병원의 연구 네트워크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내 의료계에서도 주목받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환자와의 소통,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

김 교수는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료를 강조하고 있다. “환자와의 대화는 치료의 시작입니다. 환자에게 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 과정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특히 100세가 넘는 고령 환자의 수술 경험을 떠올리며,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맥락을 고려한 인문학적 소양이나 철학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질병의 원인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치료에 집중할 것을 조언한다. “환자분들이 병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후배 양성에 대한 비전

김 교수는 의학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치료 철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후배 의사들에게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을 통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환자 진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헌신과 열정의 발자취

김정구 교수는 위암 치료와 연구, 그리고 환자를 향한 헌신으로 의료계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력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암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오늘도 환자와 연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마르타’이자 ‘마리아’로서,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박찬현 율리어나 자원봉사자

성경 중 루카 복음에 등장하는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방식이 상반된 인물들이다. 마르타는 몸소 나서서 정성껏 시중을 드는 봉사를 펼치고, 마리아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새기는 모습을 보인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봉사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마르타와 마리아 두 모습을 잃지 않으려 애써왔고, 그 노력으로 최근 서울사회공헌대전 유공자표창 대상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박찬현 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내어준 것보다 더 크게 배운 사랑

벌써 16년째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박찬현 봉사자는 환자들과 같은 주변의 아픈 이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고자 서울성모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찬현 봉사자는 병원 외래에서 내원객의 병원 안내와 수납, 키오스크 등을 돕고 때로는 휠체어 동행까지 돕는다고 밝히면서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에는 본인보다 더 오래, 깊이 있게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많으며 겸손한 마음을 전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던 2009년, ‘나는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마음에 더 늦기 전에 시작하게 됐고, 제가 봉사를 위해 내었던 시간들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 어떤 것이 사랑인지 끊임없이 배우게 됐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봉사자들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마르타이자, 마리아로서 봉사합니다

“지난 8년동안 총팀장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피정 등에도 많이 참여하고,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역할을 맡으니 봉사를 마치 잘 해내야 하는 일로 바라보게 되고, 막상 기도에는 소홀해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직접 발로 뛰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신앙인으로서 마리아의 기도하는 모습과 영성을 잊지 않는 봉사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작은 것들의 가치를 생각하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일의 나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도 있기에,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생각하다 보니 과거의 나의 모습은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어제보다 지금의 나로 보이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게 되고, 또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이자 버팀목,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

이렇듯 오랜 기간 꾸준히 봉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묻자 박찬현 봉사자는 센터장이신 원영훈 세례자요한 신부님과 차바우나 바오로 영성부장 신부님을 필두로 팀장 수녀님과 선생님들이 꾸려가는 체계적인 시스템, 함께하는 동료 봉사자들, 그리고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을 손에 꼽았다.

“서울성모 자원봉사센터는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아 역사도 깊고, 다른 빅5 병원들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잘 갖춰진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봉사를 시작하려면 면담과 4주간의 교육을 거쳐 3개월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는 등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곤 합니다. 또한 수도자가 함께 계시니 매번 회합 시간에 좋은 말씀도 나누고, 기도해주시지요. 매월 교육에는 좋은 강의도 듣고, 봉사자를 위한 미사, 연례 피정과 행사를 함께하며 활기를 불어넣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또한 봉사자 팀원들과는 거울을 보듯 서로의 모습을 비추며 끊임없이 배우고, 앞으로 아주 오래도록 만날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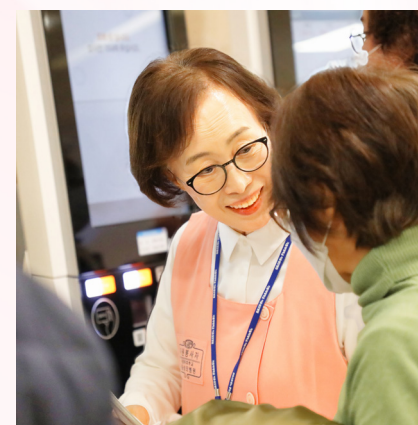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은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책 제목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처럼, 봉사활동을 해왔던 순간

순간들을 돌아보면 모두 은총이었다고 박찬현 봉사자는 고백한다. 그저 작은 시간을 내드렸을 뿐인데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음에 더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봉사하면서, 글자를 몰라 예약시간을 알 수 없어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서 기다리던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가슴이 아파 가만히 안아드리며 위로해드렸는데,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시던 그 선한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픈 환자분들과 교감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때 봉사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분홍색 가운을 입은 우리들은 제 자신이 아닌, 그저 한 명의 봉사자로서 누구에



게든 다가서서 도움드리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기쁨과 보람입니다.”



“아픈 환자분들과 교감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때 봉사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분홍색 가운을 입은 우리들은 제 자신이 아닌, 그저 한 명의 봉사자로서 누구에게든 다가서서 도움드리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기쁨과 보람입니다.”

도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위

2025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지난 1월 1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708호에서 ‘2025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직할기관 경영전략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인 ‘도전과 성장’을 주제로 시행된 이번 워크숍은 기관별 2024년 주요사업 성과 및 2025년 사업계획 공유와 함께 급변하는 의료정책과 보건 의료 패러다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경상 주교는 총평을 통해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하고 또 바르게 되는 상황인데, 이곳에 모인 산하기관들이야말로 이 엄청난 시기에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 같아 감사하며,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변함 없이 기대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무슨 일이든 잘 해내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도전으로 한계를 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열다

의생명산업연구원은 '도전으로 한계를 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열다'를 비전으로,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임상-데이터 연구자의 파트너링을 통한 신규 아이템 개발을 지원하며 내/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융합 연구를 촉진한다. 또한 기관의 강점을 살려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을 통해 K-헬스케어의 중심으로 성장을 꾀하며, 의료 데이터 정보 제공의 안정성 확보와 수익 창출을 기대한다. 이에 더해 연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연구자와 우수 연구성과 확산을 강화하는 등 연구 역량 개선에 힘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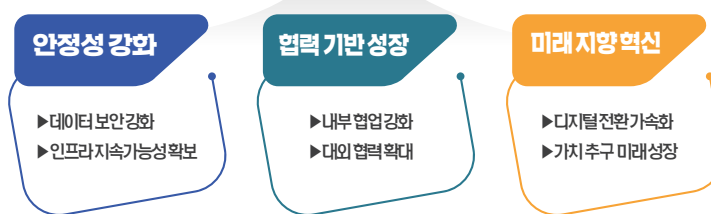
미래를 여는 도전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미래를
관의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성숙
의 Control Tower 영성비전을 확립
업 및 CMC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
을 기대하고, 의사인력 확보 및 전담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
기관별 핵심 경쟁력을 가진 집중 육
화하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연계

디지털 혁신을 위한 도전,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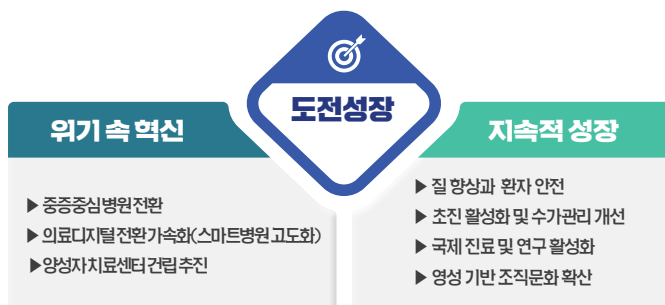
정보융합진흥원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도전,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안정성 강화, 협력 기반 성장, 미래 지향 혁신이라는 전략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솔루션 및 보안 정책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CMC IT 인프라 안정성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또 CMC 데이터 활용 심사 프로세스를 일원화해 연구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외 협력 시 연구 자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며 애프터 케어 분야의 디지털 헬스 케어를 선도하는 등 미래 의료를 이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도전,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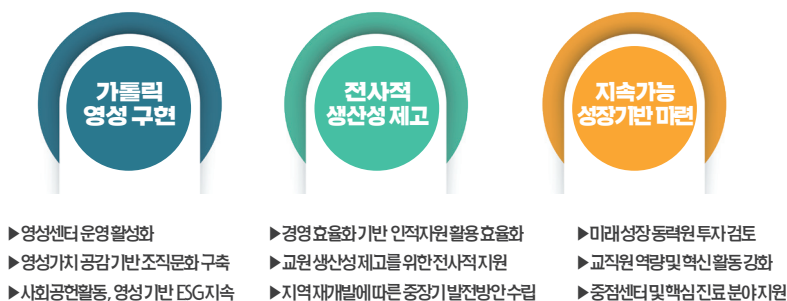
위기 속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서울성모병원은 '위기 속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 전략을 통해 멈추지 않는 성장 동력을 도모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는 중증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며, 의료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스마트병원 고도화를 이룬다. 또한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중점으로 하며, 초진 활성화 및 수가관리 개선에 힘쓴다. 또한 국제 진료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영성 기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용기와 도전이 이끄는 성장

여의도성모병원은 ‘용기와 도전이 이끄는 성장’을 경영전략으로, 미래 성장 동력원을 탐색하고 투자를 지향하며 중점 육성센터 고도화를 통해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거자씨키움센터 등 혁신 활동을 지원, 국책사업과 연구 수주, 특히 출원을 활성화하며 교직원과 조직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사적 생산성 강화에도 힘을 실기 위해 임상과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활동을 지속하고, 전문진료지원 간호사 등 인적 자원과 의료 질 향상 관리를 지속한다. 동시에 영성가치 기반 의료사업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의 정신 확산에 집중한다.



도전과 성장으로 이

성의교정은 '도전과 성장으로 이끄는
해 의정갈등으로부터의 회복 및 복귀를 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위해 구체적으로는 학부생 의사과학자 양
하고 첨단 장비 인프라를 확보하며 연구
체계를 강화한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점진적 개선을 추진한다.

- ▶ 의과대학 학사 조정 운영
- ▶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
- ▶ 4주간 호대 인증 평가 수검

- ▶ 의정갈등회복및 복귀 프로그램 운영
- ▶ 사신기증관련제도개편
- ▶ 보건의료사목적극참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가정

기회를 기회로 만들어 갈 CMC

산하 직할기관 경영전략 워크숍 실시

상임이사이경상 주교와 각 기관장 및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을 위해 이어갈 도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낼 CMC만의 고유 경쟁력,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위기를 전환점으로 극복할 전략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가톨릭 영성을 항상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기에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현실화되고

전, 함께하는 성장

어는 도전, 함께하는 성장’을 목표로 기
한 윤리 의식을 함양하며 사회공헌활동
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
전체 진료 수준을 향상하고 이익 상승
전문 간호사 지원을 통해 진료 공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성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의료윤리 강화
▶ 사회공헌활동 Control Tower 역할
▶ 의료 소외계층 돌봄

가톨릭
정신

▶ 정책 변화 적극 대응
▶ 의 중심 재편 대비
▶ 미디어 개선, 전자증빙 도입

변화
도전

▶ 강화
▶ 단 연구 지속

기회
창출

▶ 대처
▶ 변

함께하는
성장

지는 의학교육의 미래

의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가톨릭 정신을 통
해 노력하고,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 등
기관 경쟁력을 제고한다. 융합연구 활성화를
성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노후 장비를 교체
장비 인프라를 개선해 연구 분야에서의 지원
제고하고, 현행 국제 교류 협력 체제에 대해

▶ 학부생 의사과목자
양성제도 시행
▶ 연구지원 체계 강화

▶ 기관 운영 효율화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위기 대응 및 극복을 통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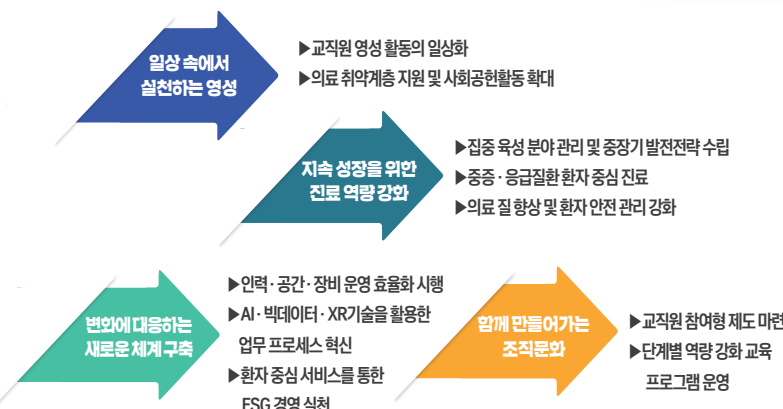
의정부성모병원은 ‘위기 대응 및 극복을 통한 성장’을 비전으로, 어려움과 기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내실을 다져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기관리 및 대응을 위해 경쟁병원 대응 시스템을 제고하고, 인적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한 민첩하고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안전시스템 고도화, 의료수익 향상 활동 다각화를 추진해 위기관리를 통한 경영 안정성을 추구해 내실을 다진다. 시설 개선계획을 추진하는 등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최상의 의료로 사람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병원

부천성모병원은 ‘최상의 의료로 사람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병원’을 목표로, 가톨릭 영성에 기반한 지역 사회 협력을 강화하며 생명 존엄성과 윤리적 의료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도약한다. 이에 더해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 및 정부사업에 참여하며,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화한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 협력병원 밀착 관리를 통해 허브 병원으로 도약하는 등 기회 창출을 도모한다. 또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통해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쓴다.

수도권 서북부 중증·응급질환 최종 치료 병원

은평성모병원은 ‘수도권 서북부 중증·응급질환 최종 치료 병원’을 목표로 중증·응급 치료에서의 지역 완결성을 제고한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영성 활동으로 교직원에게는 영적 성장, 환자에게는 치유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질 관리 및 환자 안전 문화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의료개혁 실행 방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세스도 재정비한다. 더불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병원과 구성원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2025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직할기관 경영전략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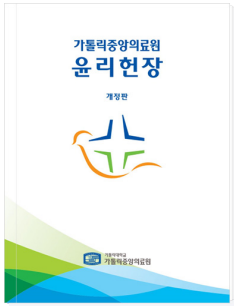
장소 | 성의회관 708호 일시 | 2025. 1. 13 (월) 오후 1시





CMC 속으로

한국 의료기관 최초 윤리헌장 기반으로 국제적 기준에 발맞춘 CMC 의료윤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12년 한국 의료 기관 중 최초로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가톨릭 의료 공동체로서 추구해 나가야 할 사명과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향해야 할 진료·연구·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행동원리와 지침, 판단규범을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CMC 윤리헌장은 총 4부 14개 장 4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 가톨릭교회 의료 활동의 역사와 기원을 되돌아보고 이를 계승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명과 정신을 재조명했으며, 2부에서는 가톨릭교회 2천 년 의료선교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활동에 있음을 서술했다. 3부에서는 가톨릭 의료 활동의 기본 원칙을 인간존엄성, 인간 생명의 존중,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주제로 나눠 제시했으며, 마지막 4부에서는 CMC의 이념을 어떻게 의료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진료·교육·연구·원목·경영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앙연구윤리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을 비롯한 8개 부속병원 총 9개 기관의 연구윤리사무국 및 기관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함께 기관 내에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윤리헌장에 근거한 세부적 연구윤리 규정인 'CMC 임상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해, 인간 대상 연구에 관련된 모든 CMC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규정은 총 12장 199개 조항, 약 250페이지에 달하며, 2년마다 정기 개정을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 개정을 진행하는 등 CMC에서 수행되거나 감독되는 임상연구가 인간을 존중하는 기관 이념을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윤리적 준수사항을 강조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엄격한 윤리원칙을 향한 노력으로 CMC는 지난해 세계적 임상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AHRPP(The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으로부터 4차 전면인증(Full Accreditation)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과 8개 부속병원 등 9개 기관 전체가 세계 최초로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단일 임상연구윤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며 전면인증을 획득한 이후 2013, 2018, 2023년까지 4번째 전 기관 동시 전면인증을 재획득하며 국제적 기준에 탁월한 임상연구윤리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에 매진 중임을 인정받고 있다.



Health&Issue

추운 겨울철, 혈압 관리에 주의하세요

● 체온이 낮아지면

피부 혈관 수축해 혈압 올라

혈압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연중 변동성을 가진다.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겨울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기온 변화에 따른 체온의 변동이 일차적인 이유로 꼽힌다. 추운 겨울날 낮은 기온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며 교감신경이 작용해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피부의 혈관을 수축해 체온 방출을 줄임으로써 체온 저하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체내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킨다.



● 겨울철 혈압관리 ABC

실내복 차림으로 베란다에 나가거나, 잠깐이라도 반소매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은 좋지 않고, 추운 겨울철에는 운동량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적절한 운동과 식이 조절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은 기온이 낮은 아침보다는 되도록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오후나 초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다른 계절보다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더 길게, 철저히 해야 하며 추운 겨울에 땀이 많이 날 정도의 운동은 갑작스런 체온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운 날에는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권장된다. 겨울철 연말에 반복되는 회식으로 인한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혈압 약의 효과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도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다.

● 혈압은 꾸준히 체크하세요!

고혈압 환자에게는 일상 생활에서 체온 변화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량과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 외에 정확한 혈압 모니터와 약물치료가 중요하다.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의 지침에는 고혈압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혈압 모니터에서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의 변동이 심한 겨울철에 적절한 혈압 모니터를 통하여 자신의 혈압 변동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 혈압계를 구비하여 매일 2번 혈압을 측정, 지속적으로 높게 측정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여의도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박철수** 교수
진료 분야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 심부전, 고혈압
진료시간 [오전] 화, 금 [오후] 월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하신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2025.2.20.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서*영
임*정
한*이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 실천을 함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아나바다 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간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나눔과 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터에서는 간호사들이 기증한 가전제품, 잡화, 화장품, 생활용품 등 500여 점의 다양한 물품들이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됐다. 판매 수익금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기관 표창 수상



서울성모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성모병원이 평소 지역보건으로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특히 '급성심장정지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보건지표 개발에 큰 기여를 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질병관리청의 자료수집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참여해 국가 보건으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간호부, 혈액암 환자 간호 연구로 AON 우수논문상 수상

서울성모병원 간호부 이지원(제1저자) 선임과 김동연(교신저자) 매니저는 정다슬, 전현지, 김진희(공동저자) 선임과 함께 최근 대한중양간호학회가 주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연구 논문 「중환자실 간호사의 혈액암 환자 간호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AON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혈액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간호 부담감을 국내 최초로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논문은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인 《Asian Oncology Nursing》에 게재됐다.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 노숙인 및 취약주민에게 선물 전달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최근 남대문과 서울역 일대 노숙인 및 신당동 여인숙 취약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성모자선회는 방한화 250켤레를 노숙인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신당동 여인숙에 거주하는 취약주민들에게는 식품키트 100꾸러미를 정성껏 준비하여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되었으며,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로 마련되었다. 성모자선회는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적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로 마련되었다. 성모자선회는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직원들 자발적인 4번째 헌혈 기부



의정부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팀 외래검사실 직원들이 최근 네 번째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을 혈액종양내과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외래검사실 직원들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직접 체감하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증 기부를 실천해 오고 있다. 헌혈증은 매주 수혈을 받는 혈액종양내과 환자들을 위해 기부됐다. 의정부성모병원은 매년 상·하반기에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구급대원 격려 방문해 응급의료 협력 강화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경기도북부 지역의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자 포천소방서와 동두천소방서를 방문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우연호 행정부원장 신부는 소방서를 직접 찾아 권운 포천소방서장,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구급대원들과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성모병원은 간식 총 167개를 전달하며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성모병원과 지역소방서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구급대원들의 헌신을 위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은평성모병원

가수 변진섭,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기부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가수 변진섭 씨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가수 변진섭 씨는 "발매했던 노래 중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거죠'의 가사처럼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은평성모병원은 전달받은 기부금을 입원비 및 외래진단 검사비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생명사랑세미나 개최



은평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최근 '청소년의 자해·자살 및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주제로 생명사랑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아청소년기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시도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도박중독 대처'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며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관계자,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 등 110여 명이 모여 최신 지견을 나누는 장이 됐다. 은평성모병원은 매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명사랑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소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

환자 안전의 날 주간 행사 개최

성빈센트병원이 최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고취와 안전한 진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15회 환자 안전의 날' 주간 행사를 열었다. 본관 1층 로비에서는 병원을 찾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 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환자 안전 캠페인'을 열었고, '제3차 환자안전 리더쉽 라운딩'을 진행하며 직원들과 함께 환자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안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퀴즈쇼와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 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성모병원 간호부 김동연 부장이 최근 모자보건사업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부장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및 모자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부장은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로봇수술 2,000례 달성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이지열 교수가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 이 교수는 2009년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래 고난도 암 수술 및 다양한 비뇨기질환의 최소 침습수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며 국내·외 비뇨기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대한안과학회 태준안과 최우수 논문상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황호식 교수가 최근 대한안과학회에서 태준안과 논문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황 교수는 줌렌즈와 초고속카메라를 안과 진료용 세극등현미경에 장착해 결막 미세혈관 내 혈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안과 연구에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남천 학술상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오재상 교수가 최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남천 학술상을 받았다. 남천 학술상은 최근 2년간 SCI(E) 등재 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 중 주저자로 발표된 뇌혈관 관련 논문의 피인용지수를 합산해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두경부종양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구연상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방주인 교수가 최근 대한두경부종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방 교수는 자기장 기반 바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이를 초음파 영상에 증강현실 형태로 표시하는 새 기술을 적용하고 그 유용성을 입증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혈액학회서 임상 연구결과 발표



성빈센트병원 혈액내과 김정아 교수팀이 최근 제66차 미국혈액학회(ASH) 연례학술대회에서 3년에 걸쳐 진행된 단독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저용량 플루다라빈 요법 시 PT-CY 기반 단일치 호혈모세포이식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발표로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성숙한 교내 인권 문화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가톨릭대 성의교정 인권센터, '제1회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배움에 관하여」

- 상략 -

대학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뒷자리에 우리와는 다른 모습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남아시아에서 왔거나 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다. 수업이 끝난 후 일어날 준비를 하는 도중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에 살며시 손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혹시 중요한 걸 놓친 않았나 묻고서는 열없는 듯 웃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니 영어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던 수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한국어만 들려오는 탓에 울가망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선 그래도 말이 통하는 또래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고마움에 나는 얼마나 무지한가 고민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지 외부의 단추를 풀고 지갑을 꺼내기 귀찮아서 거지에게 적선을 베풀지 않은 것처럼, 삶은 나를 그렇게 대했다.” (페르난두 페소아, 불안의 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이게 고마울 만큼의 일인가 합니다. 여태껏 나의 방심으로 지나쳐버린 주위 다른 이들이 내민 손길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페소아의 냉소처럼 제 무관심의 연유는 신념이나 사상 따위가 아니라 단지 일말의 번거로움 내지는 성가심이었습다. 꼭 남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겨우

살짝 피곤하다거나 조금은 일찍 일을 마치고 싶은 바람 정도의 이유입니다.

- 중략 -

우리는 타인의 슬픔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슬픔과 거리를 두려합니다. 직접 듣는 것보단 전해 듣는 것이 마음에 덜 무게가 실리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또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불행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 불행들은 전달자의 언어로 재가공되면서 그 고유한 의미를 잃고 단순한 정보로 전락해 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불행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불행에 둔감해집니다. 우리는 그 가공되는 과정에서 짝여나간 슬픔의 디테일, 매끔하게 다듬어진 슬픔의 윤곽을 지켜내야 합니다. 일률적이고 단편적으로 재편집된 슬픔들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가까이서 보고 들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학생이라고, 직장인이라고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

닌 것처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의 머나먼 타국에서 외로이 시간을 견디는 이들은 그저 다 똑같은 것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들도 각자의 마음에 파인 요철의 무늬가 다르며, 그만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로써 그들의 삶에 윤곽을 그리고 디테일을 덧붙이는 일.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공감하는 일. 공감의 해상도를 높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일. 그렇게 그들의 슬픔의 평범화에 맞서 슬픔의 단독성을 지키는 일. 그런 게 아마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자로 사람 '인(人)' 자에 사이 '간(間)' 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간극을 가까이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간극 사이의 인력(引力)은 같은 성질을 가진 동류의 슬픔끼리의 것이고 결국 슬픔을 통해 연대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이들의 인력(人力)입니다.

* 본 에세이는 축약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성모병원

‘착한 사마리아인 상’과 ‘숨겨진 보물상’ 포상

복음적 사랑을 실천한 임상과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부서에 치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2025년 시무식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상’과 ‘숨겨진 보물상’을 수여하며 교직원들의 영성 실천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상’은 복음적 사랑 실천을 통해 CMC 영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임상과에 수여되는 상으로, 가난한 환자

를 자선진료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의뢰한 부서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25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가 자선환자 의뢰 증가율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 선정되었으며, 정형외과는 3년 연속 최다 자선환자를 의뢰한 공로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병원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조직의 소중한 보물이 되어준 부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된 ‘숨겨진 보물상’의 첫 수상자들도 발표되었다. 재무팀은 그룹피드 ‘영성 구현 사회공헌 게시물’에서 높은 참여도를 기록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래원우Unit과 한국에스웨이 승강은 환자 중심 서비스를 최점점에서 제공한 노력을 인정받았고, 시설팀 내 폐오수처리실은 묵묵히 병원의 근간을 책임진 공로로 큰 박수를 받았다.

여의도성모병원은 교직원들의 영성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CMC 영성이 가난한 환자와 지역 사회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CMC와 함께 나눔 문화를 선도합니다

미래엔그룹, 연구기금 2억 원 및 아동 도서 400권 기부



할 예정이다.

김영진 미래엔그룹 회장은 “한 번의 기부보다 기부를 계속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아픈 환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후원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화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국내 의학연구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미래엔그룹에서 보내주신 기부금과 도서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돌봄에 감사합니다

배우 이미연,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배우로 활동 중인 이미연 기부자가 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미연 배우를 초청해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미연 기부자는 부친 故 이영택 님이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투병 중에 받은 의료진의 정성 어린 진료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전달식 중 이미연 기부자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 기간 중 아버지에게 따뜻한 돌봄을 주신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소속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이화성 의료원장은 “전달해 주신 기부금은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소중히 잘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나프로(Napro)임신법 통한 출산의 기쁨과 감사를 기부로 나눕니다

곽도현·김은지 부부, 딸 곽하린 어린이 이름으로 2번째 기부



최근 곽하린 어린이 가족이 여의도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을 찾아 2백만 원을 기부했다.

곽하린 어린이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나프로임신법을 통해 태어났다. 2024년 4월 여의도성모병원 취약환자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생애 처음 기부한데 이은 두 번째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병원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나프로임신법은 여성의 생리주기 변화를 기반으로 난임의 근본 원인을

밝혀 가임력을 회복시키고 자연임신을 돕는 의술로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임신법이다.

감사와 기쁨이 담긴 곽하린 어린이 가족의 기부금은 취약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대학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 치과 발전기금			
익명1	40,000원	익명2	3,000,000원	서울성모 치과병원			
• 생명존중기금(의료원위임)				1,026,000원			
익명2	4,000원	익명3	2,000원	• 혈액내과 연구기금			
(주)케이제이씨디스플레이이코퍼레이션	50,000,000원	권용범	1,000,000원	김철민			
(주)케이함플러스	1,000,000원			18,000,000원	노명숙	매월	10,000원
김학욱	10,000원			• 흉부외과 연구기금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소아)				신평호			
박지연	500,000원	이승현	1,000,000원	10,000,000원			
이희관	500,000원						
• 의료원위임(현물 법정)							
대학(성의교정)							
• 유니버시티 파크							
김광남	1,000,000원	문성도	10,000,000원				
안진성, 박선영	10,000,000원	오상근	100,000,000원				
이비인후과학교실 동문일동	2,550,000원						
홍재웅	300,000원						
• 추경문화재단 장학금(의대/간대/대학원)							
(재)추경문화재단	50,000,000원						
• 간대발전기금(위임)	간호대학 41회						
김진규, 다니엘신부 장학금(간호대)	강상수	2,000,000원					
• 산악부 장학금(기금)							
성의교정 산악부	25,600,000원						
• 안과학교실 발전기금	안명덕	9,000,000원					
• 외과학교실 발전기금	홍재웅	2,700,000원					
• 유한재단장학금	유한재단	6,000,000원					
• 의대발전기금(위임)	지형수	10,000,000원					
• 이비인후과학교실 발전(연구)기금							
이비인후과학교실 동문일동	22,950,000원						
서울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익명	50,000,000원	(주)미래엔	10,000,000원				
김철민	2,000,000원	박주현	10,000,000원				
서울성모 치과병원	114,000원	윤영화	5,000,000원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	10,000,000원						
차상석	5,000,000원	황동웅	50,000,000원				
• 성모자선회							
익명1	10,000원						



인천성모병원 부평구와 부평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 협약 체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지역 사회 의료 발전의 체계화 기반 마련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최근 부평구청에서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강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지역 의료 발전의 체계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10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에 참여해 '정신건강복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인천성모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맡게 된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 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사업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재난 심리 지원 등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홍승모 몬시뇰 인천성모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의 효율성을 한 단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성모

'경증 환자 회송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경증 환자 회송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증 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특히 인천성모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에 따라 경증 환자 회송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전하며,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경증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를 연계 받을 수 있고 회송 이후에도 인천성모병원으로 재진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신속한 예약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이정휘 진료협력센터장(영상의학과 교수)은 "인천성모병원이 중증질환의 진료와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외래 경증 환자의 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성모

긴급구조활동 기여 공로 대전시장 표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지난해 12월 31일 2024년 긴급구조활동 및 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광역시 장기관 표창을 받았다.

대전성모병원은 병원 전 직원을 중심으로 자위소방대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 소방 안전관리 체계의 질적 향상에 힘써 왔다.

또한 노후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조치하고 수술실·중환자실 등 화재취약부서 집중훈련으로 소방 안전 활동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강전용 대전성모병원장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대전성모병원의 교직원들 비롯해 환자와 이용객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예방 활동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빈
센트

4주기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평가 인증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최근 4주기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4년이다.

성빈센트병원은 지난 2023년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나,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재인증조사를 받았다. 평가 결과, 성빈센트병원은 인증 필수 기준인 ▲환자 안전 보장활동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골베 수녀는 "앞으로도 경기 남부 지역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과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지정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성빈센트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 극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이 10%(건강보험 기준)로 적용된다.

성빈센트병원은 희귀질환센터를 개설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환자 지원, 지역 사회 연계 등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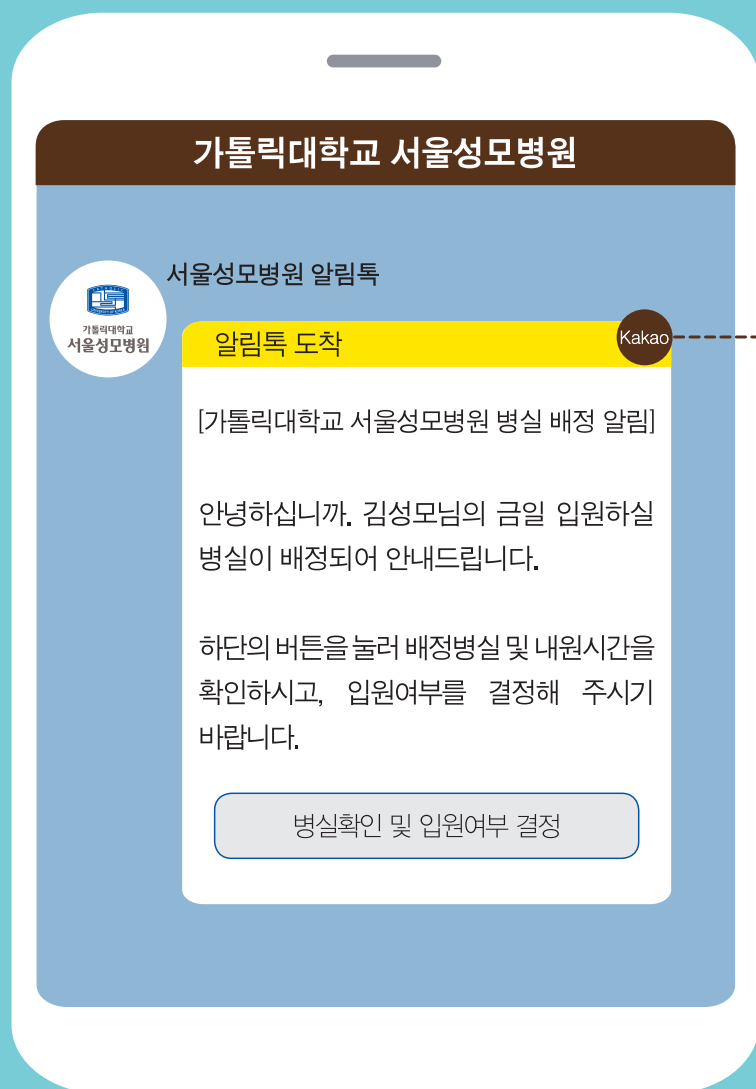


서울성모병원 '내 손안에 키오스크'

카카오톡 알림톡 실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입원 안내 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보세요!

입원 당일 안내, 비대면 결제 서비스로 대기시간을 줄이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함을 한층 높입니다.



병실배정 알림톡 도착!

입원일 오전(9:00~11:00) 입원확정된 병실 및 입원 준비사항 등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하이패스 알림톡 도착!

본원에 등록하신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 시 알림톡으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중간진료비 알림톡 도착!

중간 입원치료비가 나올 시 별도 내원없이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확인 가능

결제하신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본인인증)

당신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sungmo.or.kr

성공률 & 안정성 새로운 각막내피세포 이식술

안과병원 **황호식** 교수

● **진 료** : 백내장, 각막이식수술(전층각막이식, 부분층각막이식(DALK, DSaEK, DMEK)),
폭스씨각막이상증, 안구건조증

● **일 정** : [오전] 수, 금 [오후] 화, 목



“新각막내피세포 이식술, 성공률↑ 부작용↓”

여의도성모병원 황호식 교수, 각막내피세포 이식술 개발

국내 의료진이 기존보다 단순하면서도 안정성을 높인 새로운 각막이식
수술기법을 개발했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안과 황호식...

헬스경향 2024. 12. 17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에서

기증자의 데세메막(Descemet membrane)을 두 개의 캐놀라를 이용해 ‘더블 롤’ 형태로 변환하는
새로운 **각막내피세포 이식술**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각막내피세포 이식술 성공률과 안정성 높여줘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안과병원 황호식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각막내피세포 이식술을 개발했다. 황 교수 연구...

이데일리 2024. 12. 17 다음뉴스

여의도성모병원, 더블 롤 기법으로 각막이식 성공률 높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연구팀이 새로운 각막내피세포 이식술을 개
발했다. 해당 술기는 두 개의 캐놀라를 활용한 ‘더블 롤’ 방식으로 수...

의사신문 2024. 12. 26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고객의 한 걸음 더 편리하게, 의정부성모병원 **제2주차장 완공!**



제2주차장 신축으로 총 982대의 차량 동시 주차 가능
환자와 방문객에게 더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할 수 있어



남성 주요 발생 암 치료는 부천성모병원

수술, 항암, 방사선 등 협진 기반 분야별 전문 의료진의 **최적화된 맞춤 치료**

1위 폐 암



☞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시영 교수
 [오전] 화, 목 [오후] 화



☞ 심장혈관흉부외과
전현우 교수
 [오전] 월, 금 [오후] 월

2위 전립선암 | 발병률 10위 방광암



☞ 비뇨의학과
고준성 교수
 [오전] 화, 금 [오후] 월



☞ 비뇨의학과
조강준 교수
 [오전] 목 [오후] 수

3위 대장암



☞ 대장항문외과
안창혁 교수
 [오전] 월, 목 [오후] 목



☞ 대장항문외과
김현호 교수
 [오전] 화, 금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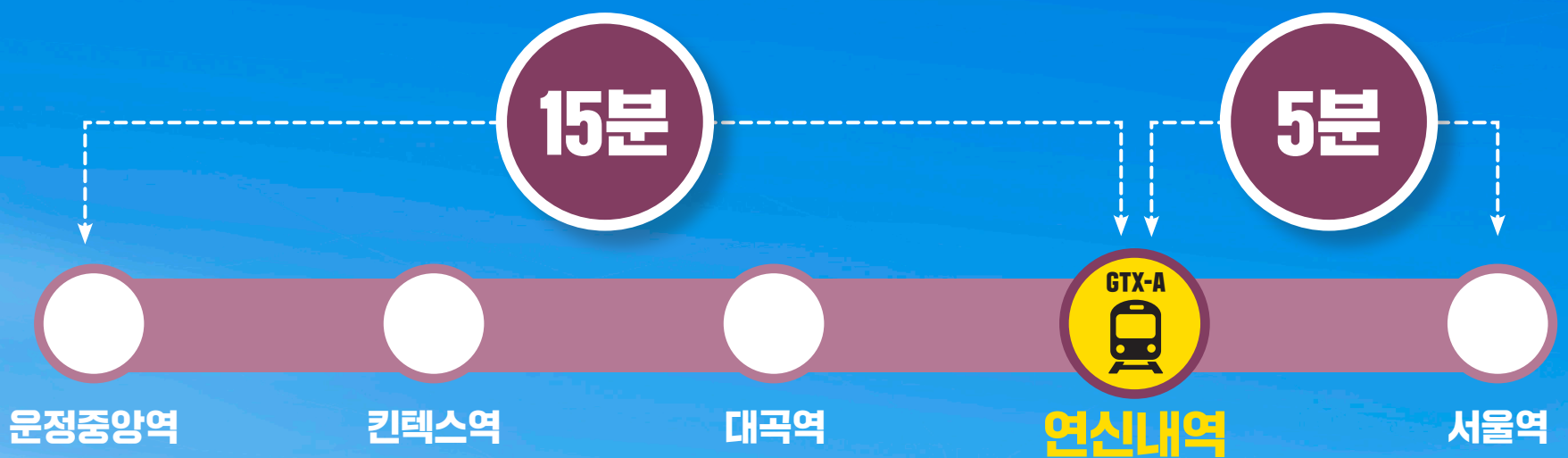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

GTX-A 노선 연신내역 개통!

은평성모병원까지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은평
03-2



마을버스 은평03-2번 환승
은평성모병원 내부 정차

